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디지털 성폭력과 남성 중심적 성문화

김수아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2014년 발표된 중식이 밴드의 ‘야동을 보다가’라는 곡은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 갤러리에서부터 촉발된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논의 활성화 이후, 불법촬영물이 핵심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해당 곡은 헤어진 연인이 나오는 불법촬영물을 본 남성의 생각을 담은 것인데, 이 곡에서 표현된 남성의 심경 묘사가 성차별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불법촬영물이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현실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2010년대 이후에야 대중적으로 인식이 되긴 했으나, 불법촬영의 문제는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연관을 맺게 된 19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다. 2005년 보도된, 동료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

하여 온라인에 게시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sup>1)</sup>. PC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문화적 전환이 일어나던 시점에서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 기록물이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던 사건에서부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인격침해를 동반하는 영상물들이 공유되고 유포되는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인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기술적, 문화적 변화를 뒤따라가는 것에 불과하여 여성의 경험과 피해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오랜 기간 축적되고 자연화된 남성 중심 성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처벌 강화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다.

\* 언론정보학 전공,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로 재직 중. 주요 논문은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표현”, “온라인 피해 경험을 통해 본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성폭력 문제”(공저),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여성혐오 및 성차별 사건 관련 게시판 토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등.

1) 권오용(2005.8.19.). 여성직장동료 치마속 몰카 “여자친구 판다” 인터넷 경매, 경향신문.

## ‘야동’의 문제 : 이중 성규범의 자연화

위의 곡 가사는 불법촬영물을 ‘야동’으로 명명했다. 야동이라는 명칭은 ‘야한 동영상’의 줄임말로 일종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밈(meme)이라고 할 수 있다. 인기 있었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성 노인 출연자의 별명으로 불리면서 친근한 유머 코드의 일환으로 사용되었고 음란물 소비와 관련된 문화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야구를 주제로 하는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야구 동영상’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명명은 상징적이기도 하다. 남들 앞에 대놓고 말하기에는 떳떳한 것은 아니므로 그 명칭을 살짝 달리하는 꼼수를 보이지만, 이를 아는 집단 사이에서 유머가 되는 방식이다. 직박구리 등 다운로드 경로에 생기는 폴더 이름을 농담 소재로 삼기도 했다.

이것이 농담이 될 수 있는 것은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음란물의 존재는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AV(adult video)를 리뷰하는 블로그가 공개적으로 운영되거나, 온라인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내 은어로 공유를 위한 줄임말 혹은 지칭어를 만드는 것, 가방끈을 패러디하여 휴지끈이라는 말을 만들고 음란물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을 휴지끈이 길다고 표현하는 것, 일본 AV의 유명 여배우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공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것 등은 유머와 음란물 소비를 연결시키면서 특정한 남성 문화를 구성해 왔다. 성인물이나 미성년자의 접근만 차단되면

어떤 문제도 없다는 전제들이 불법촬영물 공유와 유포의 근간이 되어온 것이다.

‘야한 동영상’ 즉 야동에서 ‘야하다’는 말은 음란물 혹은 성인물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성찰을 요청한다. 야한 것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이를 즐기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남성이 ‘야한 것’을 소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인식은 남성의 성욕은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이중적 성 규범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성욕의 주체로서 남성이 설정되면서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성 행동을 택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만들고 하위 문화화한다. 대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경험 연구에서 이중적 성규범을 자연화하는 경험으로 ‘야동보기’가 꼽힌 것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학교 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음란물을 접하는 경험, 그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남성의 능력 중 일부로 취급되어 성적 행위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를 발생시키는 것이 남성 성 경험의 일부를 차지한다는 것이다.<sup>2)</sup>

여기서 문제는 남성의 성욕 추구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즉 성행위는 남성 주도적인 행위로, 성적 행위를 통해 정복감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중적 인식의 문제이다<sup>3)</sup>. 그리고 성과 관련된 행위가 남성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남성 간 인정과 서열의 자원이 된다는 생각이 있다.<sup>4)</sup> 권인숙에 따르면, 이러한 남성 서열과 성의 연계는 군대 문화를 통해 강화된다. 여성 배제가 핵심

2) 최경화, 박경, 정숙정(2019). 남자 대학생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2권 1호, 55-83.

3) 신성자(1997).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공간성향 파악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대구 지역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2권 8호, 181-211

4) 공미혜(1999). 7장 성과 권력. 한국여성연구소 편, 『새 여성학강의』, 서울: 동녘, 160-183

인 군대 공간에서 남성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남성성 성취 수준을 정하고 우열을 다투는 기본 요소로 성이 활용된다<sup>5)</sup>. 현대문학에서 남성의 성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서열과 관련되어 표상되는가를 분석한 이유민(2018)이 드러내어 주는 것은 남성 성장의 과정에 대상화할 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5세까지 성행위 경험이 없는 남성은 마법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놀림감이 되고, 첫경험의 자랑과 승인, 인정 구조를 통해 공동체 성원이 되는 문화적 관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남성 성욕의 자연화는 이중적 성규범을 구성하고 강화한다. 또한 성폭력 문제에서도 해당 사건이 폭력이 아니라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한 것이었기에 ‘여자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설명되면서 여성의 인권 침해가 사소화하는 담론이 작동하기 쉽다.<sup>6)</sup> 이런 점에서 성욕을 절대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기본 욕구로 보는 시각이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의 음란물 사이트 차단과 같은 정책을 “딸칠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자위왕 찬우박”이라는 유튜버를 중심으로 진행된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 반대 시위는 야동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 검열 금지를 위해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성인의 성인물 볼 권리, 야동 볼 권리 등의 표현을 썼고 언론 역시 이러한 프레임을 사용했다. 자유도 아니고 권리라고 표현된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남성의 성욕 해소는 남성 중심 성담론의 핵심이다. 성욕 해소가 자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발생하는 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한

성찰이 진행되지 못했다.

더구나 이 담론에서는 남성의 성욕만 인정된다. 남성의 성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여성의 성욕은 수동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남성에 의해 만족되는 객체로만 상정된다. 심지어 여성의 거절은 자연스럽게 수동적 여성성의 특성이므로 거절이 진짜 거절이 아니라는 인식, 즉 강간통념으로까지 이어진다. 남성의 성적 충동이 자연스러운 만큼 여성에게는 성적 순결이나 성적 행위에 대한 무지함을 요구하는 이중 성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게 된다<sup>7)</sup>. 2015년 메르스 갤러리에서 많은 공감을 받은 패러디물이 결혼할 남자는 동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는 점<sup>8)</sup>은, 그 시점에서도 여성의 순결을 요구하는 인식이 온라인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드러내어 주고, 이중적 성규범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중 성규범 내에서 여성의 몸을 객체화, 사물화하고 침해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 구조는 매우 자연스럽게 남성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아 온 것이다.

## 단톡방 : 여성에 대한 객체화 양상

여성의 몸이 온전히 남성의 욕망 대상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기록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단체카카오톡방 등을 통한 문제 역시 계속되는 중이다. 단톡방 문제는 여성의 몸을 도구로 하는 남성 서열화 실

5) 권인숙(2009). 군대 섹슈얼리티 분석. 『경제와 사회』, 82호, 38-65.

6) 권김현영(2019). 그 남자들의 ‘여자 문제’. 권김현영 외, 『미투의 정치학』. 서울: 교양인

7) Taylor, L. (2005). All for him: Articles about sex in american lad magazines. *Sex Roles*, 52(3/4)

8) 메갈문화 등으로 기존의 남성 커뮤니티 글을 패러디해 올리는 실천이 당시 유행했는데, “결혼할 남자는 동정이었으면 하는게 여성의 솔직한 마음입니다”라는 제목의 패러디 글은 당시 한 남성 커뮤니티의 말투와 내용을 모방한 것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천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 대학 남학생 단톡방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2019년에도 연예인 중심의 단체카톡방 문제에 이어, 교대 남학생 단톡방, 기자 단톡방 문제 등이 연달아 폭로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단톡방이라는 공간이 남성 중심의 성문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집단주의적 정서, 남성성의 확인과 인정 구조 등이 이러한 단톡방 문화를 구성하는 구조이며, 한국 사회에서 남성연대가 구축되는 방식이 디지털 미디어를 만나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된 사례를 단톡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단톡방의 대화는 사적 대화의 성격을 가지며, 과거 술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오고 가던 음담패설에 불과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며, 이런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음담패설의 대상으로 여성의 몸과 성이 동원되는 남성 중심 성 문화의 문제로, 이는 그 매개체가 기록되지 않는 대화인 기록이 가능한 디지털 매체인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이런 대화는 끝나면 사라지던 과거의 음담패설과 달리 공유 가능성, 유포성, 영속가능성 등을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이다<sup>9)</sup>.

동기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카톡방의 경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때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지인들이 자신을 인간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고통과 모욕감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앞에서는 평

범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협업하던 동료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에서는 성적 대상으로서만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는다고 했다. 즉 이는 인격적인 모독감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중심 성 문화에서 여성이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이 여성에게 고통과 분노를 야기하는 것이다.

기자 단톡방의 경우, 더 문제되는 부분은 불법촬영 영상물 공유였다. 4월 디지털 성폭력 근절 운동 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이 공개한 기자 단톡방의 사례는 다른 단톡방과 유사한 동료에 대한 성적 모욕 비하 발언은 물론,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취재 시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초적인 저널리즘 윤리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주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아서, 일반 대중들의 경우에도 불법 촬영물이 사회적 화제가 되면 관련 동영상을 요청하고 공유하는 것을 별 문제의식 없이 저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인들은 직업상의 취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직업 윤리 차원에서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영상물을 공유하는 것을 오히려 ‘용자(용기 있는 자)’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격려하고 서열성을 주는 방식을 보였다. 이는 남성 중심 성문화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 구조가 직업윤리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작동하는 문제를 드러내주었다.

## 디지털 기술의 젠더 불평등한 이용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되어 서구나 일본에서 제작

9) 최이숙(2019). 강간문화의 카르텔: 언론의 젠더감수성과 저널리즘 윤리,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주최 긴급토론회 발제문(2019.5.9.).

되어 유통되는 성인물 외에, 한국 아동 혹은 국산 아동이라는 말로 장르화된 불법촬영 혹은 비동의유포 영상물에 대한 문제의식은 한국의 경우 2010년대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2015년 메르스궐러리를 필두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새로운 페미니즘 세대가 등장한 이래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삼아온 것은 여성의 몸과 폭력이었다. ‘소라넷 하니’라는 트위터 계정은 당시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아동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남성 문화의 일상적 공간으로 여겨지던 소라넷이 사실상 불법촬영물 공유와 비동의유포의 온상이자, 때로는 여성 전반에 대한 여성 혐오적 인식을 생산하고, 성희롱과 성적 모욕, 비하 발언을 일삼으며 심지어 최근 문제가 된 바와 같이 클럽 내에서 약물을 이용한 강간 등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문제적 공간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데 집중해 왔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소라넷과 같이 완전히 음성화된 것도 아닌 일종의 반공개 상태의 남성 중심 성문화 공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적 기반이었다. 또한 디지털화된 동영상 파일은 제작과 유통, 소비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해주었으며, 역으로 익명성을 매개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여 이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김소라(2018)는 이러한 특성을 통해 남성연대의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진단한다. 디지털 성폭력에 집단 참여하게 되고, 여성의 몸을 관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권리처럼 인식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10)</sup>. 이러한 문화적 특성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전환된 것

이 바로 웹하드이다.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하여 운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웹하드를 비동의유포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에의 집단 참여를 독려하면서 재유포를 상설화해 금전으로 전환하는 경제행위를 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sup>11)</sup>.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불법촬영물의 공유와 재유포를 장려하는 문화가 구성된 것은, 디지털 미디어의 장점으로 찬양받아온 상호작용성과 참여문화의 양상들이 오히려 젠더 불평등 양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시키는가를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사례 중 독일 프로그래머가 ‘음란물’에 등장한 여성의 얼굴을 소셜 미디어 사진 내에서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가 있다<sup>12)</sup>. 이중적 성규범에 근거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위해 최신 기술인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경우이다. 기술이 대체로 남성주도적으로 개발되면서, 혹은 기술 자체가 별 의도없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이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소위 지인합성 사진과 같은 기술 활용이 대표적이다. 텀블러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유통되던 이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은 개인이 올린 사진을 성적으로 착취적 이미지로 변화시켜 이용하는 것이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경험했는지 인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혹은 해당 사진 등이 잘못된 루머 특히 성과 관련된 루머와 함께 유포되면서 개인에게 심각한 공격이 일

10) 김소라 (2018).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음란성’(obscenity) 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 『아시아여성연구』, 57권 1호. 163-199.

11) 서승희(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9권 3호, 59-95.

12) Chen, R. (2019.3.31). The guy who made a tool to track women in porn videos is sorry. *MIT Technology review*. url: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13607/facial-recognition-porn-database-privacy-gdpr-data-collection-policy/>



어나기도 하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지인합성 범죄는 지인과 동료에 의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 상시적으로 여성의 몸이 관음 대상이고 거래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긴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의 참여 문화적 특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된 사례이다. 헨리와 파웰(Henry&Powell, 2014))은 이처럼 수치심을 주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성폭력과 괴롭힘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13)</sup>.

## 디지털 성폭력과 법적 판단 기준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의 문제

요컨대 사적 정보의 유포가 재생산되고 영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웹에서 성과 섹슈얼리티를 근간으로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심지어 처벌하는 이중 성규범이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젠더 불평등이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양상으로 더욱 강력하게 여성의 삶을 통제하게 된 현실에 대해 법제도적 대책 및 사회문화적 대안이 시급하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의 문제이다. 성적 수치심은 현재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주요 법적 판단 기준이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

촬영죄의 규정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김소라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 즉 음란물 판정 기준으로 불법촬영 여부를 판단하는 현 법원 판단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sup>14)</sup>. 예컨대 지하철에서 촬영된 불법촬영물의 경우 속옷 노출 정도나 신체 노출 정도에 따라 죄형이 결정되고 있으며, 다리 촬영 사진의 경우에는 성적 부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 성적 수치심의 기준 자체도 판단 주체 중심이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져 문제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성적 수치심이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별 고정관념과 이중 성규범이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법원이 성기 중심의 노출을 피해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여성 신체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일반화된 문화 속에서 음란 또는 외설의 사회적 기준을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반영한 판결이다<sup>16)</sup>. 이에 따라 결국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볼거리로 즐기는 문화 자체에 대한 성찰이 어렵게 된다<sup>17)</sup>.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가 느낀다는 것은 왜 문제인가? 허라금은 왜 수치심이 가해자의 것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것이 되는지 성과 관련된 문제의 특수성을 다룬 바 있다<sup>18)</sup>. 실제로 현재 성적 수치심의 구조는 여성을 억압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동의유포를 경험하는 여성은 피해를 인지하고도

13) Henry, N. & Powell, R. (2014).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Overcoming a Rape Culture* (Kindle Electronic Edition).

14) 김소라 (2018). 앞의 글

15) 김현아 (2017).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 장다혜, 김수아(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7) 김소라 (2018). 앞의 글

18) 허라금(2017). 성적 수치심과 권력, 그리고 수치 처벌의 정당화. 『철학연구』, 143권, 291-313.

더 공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신고하는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며, 상대 남성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것을 안 순간 유포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이는 여성이 느껴야 하는 고통이 수치심과 관련되며 이것이 강력한 사회적 배제 기제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다. 그런데 가해자 남성은 유포 행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자신의 신체가 유포되는 데 공포를 느끼지도 않는다.<sup>19)</sup> 연예인 단독방 사례에서도 자신의 성행위 영상을 공유하면서 가해자는 수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 구조 속의 인정 자원으로 삼았다.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여성의 피해와 남성 중심 성문화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여성의 복장이나 행실 등이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서 여성에게 음란의 책임을 묻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현재의 성적 수치심은 결국 음란물 판정 기준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남성 중심적 성문화에 근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 이중 성규범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들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고 고통을 주는 성적 착취라고 볼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성

적 착취는 ‘야동’이나 ‘음란물’이라는 말을 통해 사소화되고 있고, 제도와 법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유와 유포가 야기하는 심대한 피해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남성 중심적 기준의 판단을 여전히 고수하여 문제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중적 성규범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또, 갖고 남성 연대를 구성하는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성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성에게 차별화된 폭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 일반에 대한 성적 혐오를 야기하고 여성을 대상화하는 온라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특정 사기업의 영리 추구와 연결되거나 개인의 영리 추구로 연결되는 것 역시 문제적이다.

음란물의 평가 기준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지 않고 이중 성규범이 갖는 폭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법제도적 담론과 사회적 맥락에서 여성의 피해를 온전하게 다룰 수 없게 된다<sup>21)</sup>. 디지털 성폭력이 젠더 불평등에 기인한 범죄라는 점,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여겨져 온 남성 중심 성문화는 이러한 불평등을 강화,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변화와 교육적 대안 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19) 김경희, 김수아, 김은경(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근간.

20) Henry, N., & Powell, R. (2016). Sexual violence in the digital age: The scope and limits of criminal law. *Social & Legal Studies*, 25(4), 397-418.

21) 장다혜, 김수아(2018). 앞의 글.